

## Church of Christ

SIXTEENTH & DECATUR N.W. WASHINGTON, D.C. TUCKERMAN 2-4711  
VOLUME V, Number 1 January 17, 1956

### 그리스도 교회

워싱턴 D.C. 북서쪽 16번가 & 디케이터 거리, 터커먼 2-4711  
제5권 1호, 1956년 1월 17일

### MISSIONARY WORK ACTIVE IN KOREA

Letters which come to the elders from our three active missionaries in Seoul give details of the progress of our work in that foreign field, and indicate that on the foundation which has recently been laid great plans for the future are taking shape. Brothers Dong, Richeson and Chesshir are all working hard, usually under trying circumstances, to carry out the hopes and aims for which they willingly gave up the comforts of our American way of living to move into that war-torn country to carry on the work of the Church.

###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 활발히 진행 중

서울에서 활동 중인 세 명의 선교사들이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한국 선교 사역의 진행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최근에 다져진 기초 위에 미래를 위한 큰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 형제, 리체슨 형제, 체셔 형제는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미국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으로 건너가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품었던 소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Dale Richeson writes that at last he has completed the negotiations for the land on which, in a duplex, Japanese-built house, the two American missionary families live. Untangling the red-tape and pushing the deal through was a long and frustrating task, much of which fell upon Brother Richeson's shoulders inasmuch as he was the first one to arrive on the scene. It seems indeed to be a milestone in the launching of our big program for Korea. The property, serving temporarily as a home for the two families, will perhaps be turned over as soon as possible to educational and office use; and another site outside the city may be acquired for living quarters, and possibly as the center for a college.

데일 리체슨은 마침내 두 미국인 선교사 가족이 살고 있는 복층구조로 된 적산가옥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복잡한 관료절차를 풀어내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일은 길고도 답답한 과정이었으며, 선교지에 가장 먼저 부임한 리체슨 형제에게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한국을 위해 진행 중인 대규모 계획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듯합니다. 두 가족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 건물은 가능한 한 빨리 교육 및 사무 용도로 전환될 수 있으며, 도시 외곽의 또 다른 부지가 주거용으로 확보되면, 향후 대학을 위한

센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Haskell Chesshir, who is enthusiastic about the starting of a college by next autumn if possible, has outlined quite in detail many practical suggestions for our consideration. He is at present teaching a class on "Early Church History", meeting daily in the afternoons. Brother Richeson has also started a course. They are offering the courses to all who will attend, and are encouraging college students to take the course for credit and to be tested by examinations. Chesshir writes: "The purpose of my class is to show the establishment, the growth, and the spread of early Christianity. We are studying Acts and will introduce the letters of Paul at the time they were written in our study of Acts. Our main purpose will be to point out that Christianity spread without a great deal of support from sponsoring churches." Later they plan to start a course on community work for Sunday School teachers or a course for preachers. They are using as their secretary and native interpreter a fine young man named Johnny Chang.

해스켈 체셔는 가능하다면 내년 가을까지 대학을 설립하는 데 열정적이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 실질적인 제안들을 아주 자세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오후마다 '초기 교회사' 강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체슨 형제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들은 참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는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셔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 수업의 목적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설립, 성장, 그리고 확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바울 서신이 기록된 시점에 맞추어 그 서신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요 목적은 그리스도교가 후원 교회들의 큰 지원 없이도 확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지역사회 봉사 강좌나 설교자를 위한 강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조니 창이라는 훌륭한 젊은이를 서기 겸 현지인 통역사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As previously announced in the News sheet, Brother S. K. Dong has been asked by our elders to return as soon as possible to the States to work again among the Churches of Christ here, and a petition has been filed with the immigration authorities for him to re-enter the country as a non-quota immigrant and a minister of the church. The elders of the Arlington Heights Church, the Polytechnic Church and the Roanoke Church, all of Fort Worth, Texas, which churches have been helping with his support agree with the elders of the Sixteenth and Decatur Church that Brother Dong, who has been so successful campaigning for the cause in the past, should work for the present in America to raise the money for building needs....

앞서 선교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장로들은 동석기 형제에게 가능한 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와 이곳 그리스도 교회에서 다시 사역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가 할당량에 제한되지 않는 이민자이자 교회 목사로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이민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형제를 후원해 왔던 텍사스 주 알링턴 하이츠 교회, 폴리테크닉 교회, 로아노크 교회 및 모든 포트워스 교회들의 장로들은 과거에 이 사역을 위해 매우 성공적으로 활동해 온 동 형제가 현재 미국에서 건축에 필요한 후원금 모금에 힘써야 한다는 데 식스틴스 디케이터 교회의 장로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